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수사 확대

병원 · 비리 연루 간부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팀도 광주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이관해 강화

경찰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원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팀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무국장 A씨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총무과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에서 제기한 고발건과 함께 병원 사무국장 아들 · 조카 · 아들 전 여자친구 등 채용 비리 의혹과 또다른 간부 아들 채용에서 불거진 '품앗이 채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의혹 이후 사무국장이 컴퓨터를 무단교체 한 정황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 주체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바꾸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22명에 대한 조치를 처분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채용 업무에 관여했으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감봉 1명, 경고 11명 등 경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6일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측의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광주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빠찬스'와 '품앗이 채용', '전직 간부 아들 채용', '컴퓨터 무단교체로 인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람들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 동구,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8.17%…전국 1위

광주 동구는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를 비교 · 조사한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8.1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 등을 고려, 지자체별 교통 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로 2005년부터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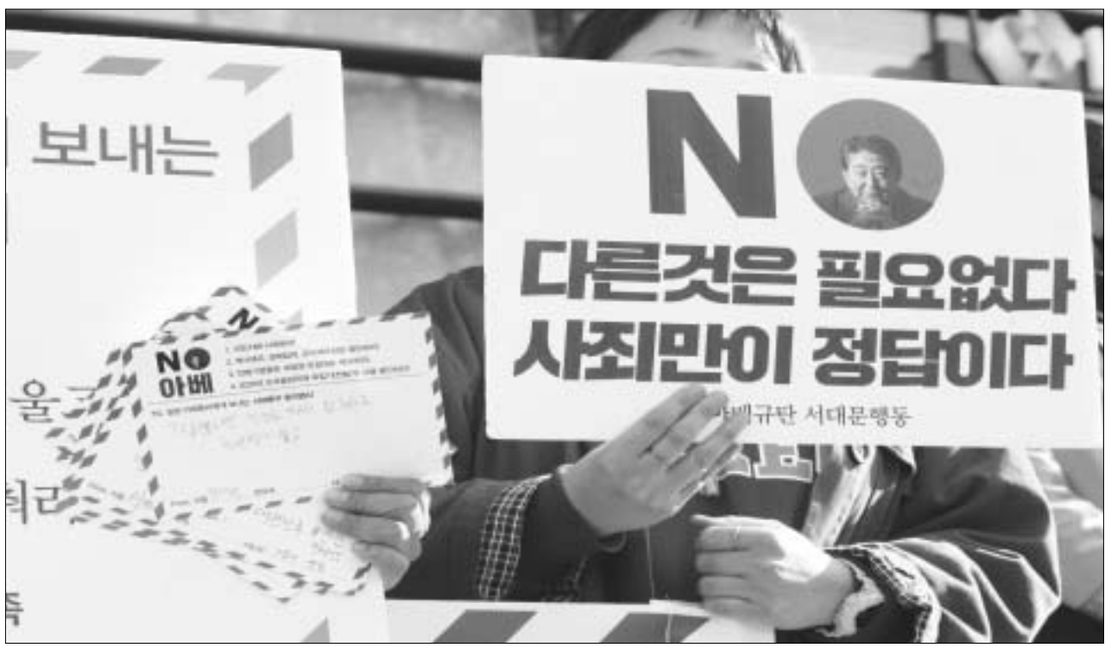
평가방법은 6개영역(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18개 세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통안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광주 동구 교통안전지수는 2017년 76.83점에서 2018년 83.11점으로, 개선율이 8.17%에 달해 전년대비 교통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지수도 최우수등급(A)을 받아 교통안전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동구는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확충, 회전교차로 ·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왔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죄만이 정답이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서대문행동 회원들이 아베 정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중등교사 임용시험 6.72대 1…공립교사 여성 70%

공 · 사립 동시지원제 실시

전남도교육청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72대 1로 나타났다.

30일 전남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2020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620명(공립 487명, 사립 133명) 선발에 4164명이 접수해 평균 6.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립은 487명 선발에 3426명이 지원해 7.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립은 133명 선발에 738명이 지원해 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서지역 구분모집에도 11명 선발에 74명이 지원해 6.73대 1을 나타냈다. 장애교사 모집은 34명 선발에 2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0.70대 1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교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립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 · 사립 동시지원제를 실시했다.

사립학교는 738명이 1순위로, 2131명이 2순위로 지원했다. 2019학년도 37명 선발에 302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공립교사의 경우 남성 30%(1027명), 여성 70%(2399명)이며, 사립교사는 남성 47%(345명), 여성 53%(393명)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11월23일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15일 도교육청홈 페이지에 공고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월31일 발표한다.

생후 25일 신생아 침대에 던진 가사도우미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가사도우미 A씨(59 · 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부모는 집 안 CCTV 영상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학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술 취해 거짓신고한 40대 입건

40대 취객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가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A씨(42)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4분쯤 광주 남구 백운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술에 취해 백운지구대를 찾아가 '집에 데려다 달라' 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경찰관의 차를 음주운전차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 시민이 구했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50대 남성이 곧장 바다로 뛰어든 한 시민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3분쯤 여수시민 김성우씨(49)는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 앞 물양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A씨(56)를 발견하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다.

김씨가 A씨를 구조하는 상황을 본 한 시민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폐질환 증세를 보여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 후사경을 통해 A씨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즉각 구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구조한 김성우 씨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쇼핑하다 비행기 못탄 중국인, 승무원 폭행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승무원을 폭행한 중국인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B씨(25 · 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객인 A씨는 이날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새벽에 집 나간 70대 치매 환자 숨진채 발견

치매에 걸린 70대 남성이 실종 신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쯤 A씨(79)가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다며 A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날 오전 1시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24분쯤 강화군 장화리 인근 해안가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